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입춘을 앞두고 강풍과 한파가 동시에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때아닌 김치 중주국 논란으로 뜨겁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김치의 중주국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그들이 중주국이라고 한다. 문제의 중심이 된 곳은 구독자 1400여만 명을 둔 중국인의 유튜브였다.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 보니 출연자가 발에 나가 뜬이 배추로 김치를 담근다. 밑거름 풀을 쓰고 풀이 식기도 전에 고춧가루를 넣고 양념을 한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돼지고기를 썰어 넣고 김치찌개를 만들고 해쉬 태그에 '차이니스 푸드' (chinese food)라고 달아 놓았다.

이것을 본 젊은 한국인 유튜브가 김치는 한국이 중주국인데 왜 김치를 '차이니스 푸드'라고 하느냐고 한 것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두 젊은이가 인터넷 상에서 벌인 논쟁에 두 나라의 언론이 즉각 반응하였다. 이에 김치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듯하다.

김치는 중국에서 파오차이(泡菜)라고 부르는데 우

김치, 이제는 세계인의 음식

선 이 명칭부터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김치는 고 유명하다. 중국에서도 김치를 김치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중국어 발음에는 '김'이라는 발음이 없다. 가장 근접한 발음을 찾아 보아도 '진' 아니면 '신'이다. 그렇다면 진치나 신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발음으로 김치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김치를 표현할 말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발음은 없고 중국의 쓰촨성에 파오차이라는 요리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이니 한국 파오차이라고 부르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김치는 배추를 절인 뒤 젓갈과 고춧가루·새우젓·무 등을 버무리고 비벼서, 배추의 사이사이에 속을 채우고, 김치독에 꼭꼭 눌러 담은 후 발효가 되면 먹는다. 반면 쓰촨 파오차이는 산초, 계피, 팔각, 월계수잎 등의 향신료를 물에 넣고 끓여서 식힌 다음 물에 소금, 파, 마늘, 양배추, 무, 당근, 셀러리를 썰어 넣고 고랑주를 넣는다. 가장 빠르게는 일주일에서 보름 후부터 재료만 건져서 먹고 그 국물에 또 채소를 넣고 발효되면 또 재료만 건져 먹는 음식이다. 우리의 김치가 김치국까지 모두 먹는 반면 파오차이는 국물을 먹지 않는다. 김치와 파오차이는 이렇게 다르다.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하므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장을 담가 저장을 해야 했다. 고춧가루는 색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하고 젓갈은 발효를 촉진시켜 맛을 낸다.

쓰촨 파오차이를 만들어 내는 중국의 서남부 쓰촨 지역은 땅이 아래로 움푹 들어간 분지를 이루고 있다. 여름에는 무척 습하고 더우며 겨울은 속으로 음습한 추위가 스민다. 따라서 여름엔 더위를 식힐 음식으로, 겨울엔 입맛을 돋을 수 있는 음식으로 파오차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음식은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먹기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전파된다. 전파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음식문화와 서로 부딪치거나 융합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 내면서 정착되기도 한다. 간혹 어떤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긴장 상태가 되더라도 민간인들이 문화예술 방면의 교류를 통해서 두 나라 사이의 얼음을 녹이는 과정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김치 논쟁이 정치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식 세계화'에 많은 공을 들여 왔다. 그 결과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식에 대해 혹은 김치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중주국의 개념은 '어디서 발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갔느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김치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팔 것인가 각 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는 뉴욕의 한복판에 김치는 한국 것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통크게 김치는 세계인의 것이라고 써야 할 때 아닌가.

종교칼럼

인생은 만남이다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독일의 의사이자 작가였던 한스 카로사(1878~1956)는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가까이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시장에서 차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람의 만남은 때로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기도 한다. 좋은 만남은 좋은 사회를 만든다. 인생의 성공도, 행복한 가정도, 좋은 교육도, 좋은 직장도 다 만남이 잘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좋은 만남을 선연(善緣)이라 하고 나쁜 만남을 악연(惡緣)이라 한다. 선연은 서로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하고 공경하고 도와준 결과요, 악연은 서로 불평하고 빼앗고 원망한 결과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에서는 악연을 선연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즉 무관심과 단절의 벽이 두꺼워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은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마음의 고립과 육체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사회철학 교수였던 마르틴

부버(1878-1965)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은 나와 너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서의 만남, 즉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 대 물건으로의 만남이 있을 뿐이고 진정한 만남이 없음을 우려했다.

현대인들에게 이웃은 점점 없어지는 존재이다. 아파트의 한 계단을 이용하면서도 서로를 너무도 모르고 살아간다. 요즘 어린이들은 아이들의 이름과 신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모두가 너는 너, 나는 나로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가 되어간다고 하는데 가까운 이웃과는 점점 답이 높아져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마르틴 부버는 새로운 기계문명과 분업화된 생산 구조는 점점 인간적 소통을 약화시키고 협동의 필요를 감소시켰다고 진단했다. 기계화의 추세에 따라 요즘 농촌에도 트랙터와 콤파인이 등장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몇 배의 일을 처리해 준다. 그러나 콤파인이 등장한 들판에는 품앗이가 적어지게 된다. 품앗이는 상부상조의 따뜻한 협동 운동이다. 품앗이가 적어진 농촌은 서로가 절실한 필요를 덜 느끼게 될 것이고 필요를 덜 느끼는 만큼 인간적 관계도 약화될 것이다.

예전에는 잠깐의 길동무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었다.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먼 길도 지루한 줄 몰랐고, 미지의 위험도 함께함으로써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문명은 인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반면 물질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켰다. 다

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벌이에 대한 관심과 쾌락에 대한 관심으로 차 있다. 은행 창구에서, 상점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오직 돈을 중심으로 한 물질적 관계만이 있다. 여기에는 진정한 인간적 만남이 없다. 인간적 만남이 상실된 사회는 사람은 사람도 친구가 없는 고독한 관계이다.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라고 했다. 인간의 삶 속에 서로 위토가 되고, 의지가 되고 없어서는 살지 못한 깊은 관계임을 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웃을 소중하게 알고, 이웃의 일에 관심을 갖고, 서로 감사를 느끼며 인정을 나누면서 사는 생활 속에 진정한 삶의 보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의 나의 생활이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도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다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상상이면서도 우리는 이웃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박종민·1891~1943)께서는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이웃을 동포라 했고 그 동포에 대한 고마움을 동포은(同胞恩)이라 했다. 함께 사는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면 우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라 했다. 우리는 악연을 선연으로 맺어가는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서로 의지가 되는, 은혜를 자각하며 사랑의 이웃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대면 시대 방역 수칙은 지키면서도 이 어려운 시국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인생의 소중한 만남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노인 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의 역할

(제39조의 3)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에 따라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따져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하고 있다.

노인 재가복지센터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중풍·뇌경색·뇌혈관질환·파킨슨치매 등)이 있는 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85~100%까지 등급에 따라 재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가 급여의 종류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이 있다. '방문 요양'은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며, '방문 목욕'의 경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재가복지센터에 근무하면서 '어르신 돌봄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다. 따라서 가사 도우미나 자원봉사자가 아닌 노인복지서비스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이나 일상생활, 개인 활동은 물론 정서적 지원 등 전문적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적 역량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더욱 더 투철한 직업적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수급자와 약속한 돌봄 시간을 준수하고, 주어진 업무 외에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인 어르신(수급자)을 존중하고, 전문적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휴먼 서비스(human services)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社說

엄격한 복당 기준으로 '정치 철세' 막아야

전남도의원들이 원칙 없는 복당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51명은 지난 2일 중앙당이 합리적인 복당 기준을 마련해 달라라는 건의문을 중앙당과 전남도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탈당 인사들 복당시키려면 그에 합당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민주당 내부 규정에는 '탈당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나서면 공천 심사에서 최고 25% 감점을 부과한다'라고 돼 있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전원이 집단으로 건의문을 낸 이유는 최근 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이 일부 정치인들의 복당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중앙당은 지난 3일 특별 복당 형식으로 명현관 해남 군수를 입당시키면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명 군수의 '무혈 복귀'를 지켜 본 해남 지역 군의원들도 앞다퉈 민주당 전남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전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한 사람은 1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70% 가량이 입당을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당 신청 인원이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경쟁이 불붙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의원들은 복당 반대 명분으로 '철세 정치인은 안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건의서를 제출한 전남도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탈당 전력이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선거철을 앞두고 반복되고 있는 철세 정치인 복당 논란은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생활안정자금 못 받는 자영업자 서럽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키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역 수칙을 어겨 문제가 된 특정 종교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카페와 식당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제12차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4만1388개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업체에 127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유통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편 등 집합금지 업소로, 업소 한 곳당 150만 원이다.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에는 1곳당 30만 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공공체육시설 수영 강사 등 비정규직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시의 재정 지원은 집합 금지 등 행정조치로 운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노래방과 카페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탓에 이들 업계의 집단 반발을 초래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한 달만 집합금지 업소로 분류된 홀덤편에도 150만 원을 지급키로 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한노래연습장협회 중앙회와 광주 노래업협조합 등 노래방 업자들이 엇그제 광주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카페 업계도 입장은 다르지 않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로서는 모든 업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건은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원하는지 여부다. '종사자들이 많아 결국 감당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 업종을 배제했다는 설명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마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언제부터인가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할 것 없이 구멍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어김없이 편의점이 들어서고 있다. 편의점은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문을 여는 데다, 다양한 상품으로 구색을 갖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구멍가게는 시골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가 됐다.

편의점은 일용 잡화와 식료품을 파는 곳이지만, 애초 시작은 얼음 가게였다. 1927년 미국 텍사스주 오크 클리프라는 소도시에 제빙 회사인 '사우스랜드 아이스'의 위탁으로 얼음 가게를 운영

편의점의 탄생

하던 '존 제퍼슨 그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얼음 소매와 함께 얼음 판매대로 삼아 그 위에 빵, 우유, 달걀 등 식료품을 올려놓고 팔았다. 이 제품들은 얼음의 냉기 덕분에 주변 식료품점의 제품보다 신선도가 뛰어나 인기를 끌었다. 신선함 탓에 점차 주민들이 요구하는 품목도 늘었다고 한다. 매출이 늘자 존 제퍼슨 그랜은 다른 식료품점이 문을 닫는 저녁 시간과 일요일에도 문을 열었다. 그의 성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사우스랜드 아이스' 회사의 임원 '조 톨슨'은 전국 각지의 얼음 판매점에서 식료품을 팔게

했고, 급기야 회사명을 '아이스'를 뺀 '사우스랜드'로 바꾼다. 전문가들이 편의점의 탄생으로 보는 대목이다. 이 회사는 1946년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영업한다'는 뜻을 가진 회사를 만들었다. 바로 '세븐일레븐'이다. 폭발적인 인기로 힘입어 1962년 처음으로 24시간 영업을 시작한 세븐일레븐은 일본에서 특이 큰 인기를 끌었다. 나중에는 결국 일본 기업이 이 회사를 인수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1989년 세븐일레븐 1호점(울림픽션수촌점)을 시작으로 수많은 편의점 브랜드가 쏟아졌다. 현재 우리는 얼음 소매와 함께 얼음 판매대로 삼아 그 위에 빵, 우유, 달

걀 등 식료품을 올려놓고 팔았다. 이 제품들은 얼음의 냉기 덕분에 주변 식료품점의 제품보다 신선도가 뛰어나 인기를 끌었다. 신선함 탓에 점차 주민들이 요구하는 품목도 늘었다고 한다. 매출이 늘자 존 제퍼슨 그랜은 다른 식료품점이 문을 닫는 저녁 시간과 일요일에도 문을 열었다. 그의 성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사우스랜드 아이스' 회사의 임원 '조 톨슨'은 전국 각지의 얼음 판매점에서 식료품을 팔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